테마칼럼

이성세계 | 정치프리즘 | 정세의 눈 | 문화 향기

감상 몰입할 수 있는 미술관 없나요

박 영 택
〈미술평론·경기대교수〉

“ 전시를 본다는 것은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쳐다보듯 ‘아이서핑’ 할 수 없다. 그 일은 자신이 직접 작품 앞에 서서 온 몸의 감각밸브를 죄다 열고 반응하고 기다리며 읽고 느끼고 생각에 잠겨야 하는 일이다. ”

방학 철이 되면 미술관들은 대형 전시를 경쟁적으로 유치한다. 이른바 블록버스터 전시다. 현재 르네마그리트, 고흐에서 피카소까지, 장 뒤뷔페, 루브르미술관전 등등 서양미술의 걸작과 거장들의 목록을 앞세운 전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사실 이것 역시 서울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 아마도 방학이란 특수를 노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람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에서 일 것이다.

거대언론사와 미술관이 함께 기획하는 이 전시들은 영화나 오페라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박을 터트리면 꽤나 쏠쏠한 이윤을 남기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열린 샤갈전시 등이 입증했다.

특히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루오전은 지방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로는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대형전시를 유치하고 수준 높은 거장들의 진품을 대규모로 전시하고 관람하는 문화는 사실 근자에 가능했다.

참을 수 없는 소음들

그만큼 우리 미술문화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외국전시나 대형블록버스터 전시라는 것들의 의미와 질적 수준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과연 전시를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감상교육이란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전시체험은 어렵다는 사실도 인식할 때가 되었다. 덧붙여 아직도 인상주의작가나 샤갈, 피카소 같은 서양미술의 대표작가들 만을 반복해서 불러들이는 이곳의 미술풍토도 좀 반성되어야 할 것 같다.

기획사측에서는 대중들이 알고 있는 작가들이 기껏 미술교과서에서 접한 소수 작가들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하겠지만 좋은 전시는 미지의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시는 일종의 교육이고 새로운 체험이자 발견이다. 또한 전시를 기획하고 유치한데서 머물지 말고 그 전시가 지닌 의미와 작품에 관련된 충실한 해설과 친절한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시장에 가보면 학생들은 방황하듯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한편 작품 감상은 뒷전이다.

그들은 그저 방학숙제 하나를 해치우기 위해, 과제물로 제출할 도록 하나 수집하기 위해 온 것 뿐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인솔교사나 학부모들 역시 적절한 통제나 관람지도를 하지 못한 체 방임하고 있는 상황도 자주 본다.

미술관의 직원이나 큐레이터들 역시 그런 관람태도나 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듯 하다. 적절한 작품 감상을 고려해 일정한 인원을 시간에 따라 출입시키는 한편 사전에 전시 관람태도나 방식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한편 전시작품에 대한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노력과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장치 없이 그저 학생들에게 전시를 관람하라고 전시장에 풀어놓거나 상투적인 전시소개로 그칠 경우 전시 관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시를 본다는 것은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쳐다보듯 ‘아이서핑’ 할 수 없다.

백화점 같은 전시장

그 일은 자신이 직접 작품 앞에 서서 온 몸의 감각밸브를 죄다 열고 반응하고 기다리며 읽고 느끼고 생각에 잠겨야 하는 일이다. 전적으로 자신과 작품이 만나서 파생되는 사건이 작품을 보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요하고 마음의 여유로움과 풍만한 감성으로 찰랑거리는 몸, 그 액체성과 휘발성의 육체와 감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시를 보는 일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일이며 그로인해 새로운 정보와 한 인간의 감성과 감각, 기억과 상처 등을 접하는 것이다.

작가들 저마다 미술에 대한 생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결국 작업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사유의 구조를 또한 드러내는 것이다. 좋은 기획전시란 바로 그런 사유와 울림을 풍부하게 던져주는 전시다. 무수히 많은 작품을 보고 그 작품 앞에서 미술에 대한 혹은 우리네 인생과 연루된 문제들을 한께 생각해보는 이 전시 관람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공부고 경험의 장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 아래 전시를 꾸미고 감상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민간 아파트 원가공개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공공 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와 광주를 비롯한 광역시 및 9개 시·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진다.

민간 아파트 원가공개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분양가를 10~20%, 많게는 30%까지 인하해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등 ‘반 시장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공급이 줄고 결국 수년 후 가격불안 요인으로 작용,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분양가 공개가 지방건설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경우 가뜩이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가공개가 실시되면 사업 지연 및 포기 사례가 속출해 결국 분양가 인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9천 세대를 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돼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방의 분양가가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원가공개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지방경제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분양원가 공개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늉만 해선 안된다

행정자치부가 10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이 장기적으로 정부의 부담액을 늘려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한다. 개혁이 아니라 시늉만 했다는 것이다. 퇴직 및 현직 공무원들은 아무런 변화없이 미래의 공무원들만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 것은 기득권 지키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개혁시안에 따르면 30년 재직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현행 7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져 연금 수령액이 20% 정도 줄어들고 매달 불입하는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그만큼 올려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액수는 현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대신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시행 초기 약간 개선됐다가 2020년께부터 10년 정도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수위가 이런 식이면 앞으로 진행될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개혁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 명분도 잃게 된다.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최종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마저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하니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연금은 받는 것만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들이 덜 내고 더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최대 배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며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없이 국민연금만 줄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만 ‘봉’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의료 칼럼

최 정 길

골다공증 예방 중년부터 신경써야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로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의료인들 및 일반인에도 많아지고 있다.

골다공증이란 뼈 안의 골량의 감소로 인해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남아 있는 뼈에는 구조상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서 뼈를 형성하는 구성성분의 양이 동일한 비율로 심하게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골다공증 환자의 80%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50세이상의 여성중 2명중 1명, 50세 이상의 남성중 8명중 1명은 그들의 일생중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을 경험하게 된다. 골다공증은 흔히 조용한 질환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증상이 없이 뼈의 골량이 소실되기 때문이며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넘어지는 등 비교적 크지 않은 외상에 인해 골절을 일으킬 수 있다. 골다공증 때문에 발생되는 골절들은 척추, 대퇴골, 손목부위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해 약해져 골절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건강하게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시던 분이 사소한 외상으로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골절을 진단받고 또한 골다공증이라는 병명을 들으면 당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대표적인 합병증이 척추뼈가 골절로 인해 주저앉는 상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넘어지거나 평소에 하던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급작스런 허리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심한 통증만 있다가 점차로 주저앉는 상태가 진행되면 척추뼈가 납작해지면서 등이 앞으로 굽는 변형이 생겨 이를테면 ‘꼬부랑 할머니’가 된다. 일차적 치료는 통증의 완화를 위해 진통소염제의 투여와 함께 골절부위의 자연 회복을 위해 활동을 제한시키는 침상 안정이 필요하며 수주간의 안정기간이 지나 골절의 어느정도 회복이 이루어지면 척추 안정화를 위해 보조기를 차고 서서히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치료로는 통증의 감소나 골절의 진행을 막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 경향은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방법으로 전신마취 없이 국소마취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환자 대부분 나이가 드신 환자들이므로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등 만성 전신 질환을 앓아온 분들이다. 따라서 전신마취 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국소마취로 안전하게 시술, 85-90%이상의 통증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성인은 약 20세까지 골격의 98%가 완성된다고 하므로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뼈를 구축해 놓은 것이 노년에 골다공증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칼슘이나 비타민D가 충분한 균형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걷기, 조깅등의 운동으로 뼈에 일정한 작극을 주어야 하며 금연과 제한된 알콜 섭취등의 건전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경후 5-7년이 지나면 20%정도의 골손실이 온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특히 폐경기가 지난 여성들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가 필수적이다. 〈동아병원 원장〉

독자마당

운전중 DMB·네비게이션 사용 위험하다

최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이 많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단말기를 켜고 다니다 신호 대기중이나 길이 막힐 때 드라마를 보거나 스포츠 중계를 본다.

뒤 따르는 운전자나 옆 차량 운전자가 보기에는 참 위험하다. 운전중에 DMB를 켜놓으면 운전실력이 제 아무리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신경이 DMB쪽으로 쏠리게 될 수 밖에 없다. 좌우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다. 초행 길이나 자주가지 않는 길에서는 유용하지만 운전중에 조정하다 보면 사고 위험이 크다.

운전자들도 휴대전화 통화 보다 DMB 시청이나 내비게이션 조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운전 중 TV 시청을 단속할 만한 현행 법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운전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출퇴근길 정체 현상이 심하다고 해 TV를 시청하는 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독버섯이다.

▲김재준·광주시 동구 계림동

애완동물 건강관리 철저히 한 뒤 판매해야

얼마 전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애완견을 사줬는데, 데려온 지 며칠 되지 않아 강아지가 심하게 아파 서둘러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동물성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즉시 애완견을 판 가게에 연락해서 다른 강아지를 받아 왔다. 그런데 이 강아지 역시 일주일 뒤 같은 증세를 보이는게 아닌가.

그 동물 가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환불을 요구했는데 담당직원이 “사간이 일주일 지난 강아지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그 강아지는 보름 만에 죽고 말았다.

돈도 돈이지만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애완동물 가게는 동물을 팔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한 뒤 판매했으면 한다.

아무리 말을 하지 못하는 강아지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였고 그 생명체로 인해 아이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오룡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일반 쓰레기 버리는 건 얌체짓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때문에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주민들이 음식물 수거함을 쓰레기통으로 어겨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를 그 주변에 마구 버리는 탓이다.

쓰레기 수거차도 쓰레기 봉투에 담긴 것만 치워가기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들은 그대로 남겨져 인근 주민을 괴롭힌다.

언젠가는 살고 있는 집과 다세대 주택 사이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주변이 누군가 쌓아놓은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오해해 크게 다툰 적도 있다.

이정도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린 쓰레기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부디 규격봉투 값 몇 백원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점순·목포시 대양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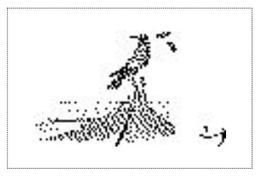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깡치’

〈…칠산어민들은 조기를 잡으면 기를 올렸다. ‘우리 배에는 조기가 있다’는 신호였다. 법성포와 함평의 죽포 수랑개에 있는 객주와 인천, 군산, 강경, 목포 등지의 상고선들이 조기를 사들였다. 조기는 1천 마리가 한 동이며 1950년대를 기준으로 쌀 세 가마니 값이었다. 배 한 척이 하루에 많이 잡으면 열 동까지 잡았다.

고깃배들은 대략 70여 일 동안 조기를 잡았기 때문에 쌀과 물이 떨어지면 위도로 가서 공급받았다. 보리가 피는 망종까지 꼼짝없이 배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느라고 이발은커녕 목욕도 하지 못하여 이가 득실득실하였다. …〉



민속학자 주강현의 ‘조기에 관한 명상’은 흑산도에서 법성포를 지나 천수만까지, 조기의 여정을 그린 역작이다.

그는 이 책에서 ‘붉은 등을 내걸은 조깃배가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 동안 흡사 연등놀이를 하듯이 밤바다는 환해졌다. 그물은 집에서 직접 면실을 사다가 손으로 꼬아서 들기름을 먹여 만들었다. 닻줄조차도 칡순으로 만들어 썼다. 조기가 잡히는 봄철, 자그마한 포구마을은 돈을 푸대에 퍼 담을 정도로 흥청거렸고 색주집도 즐비하게 늘어서 뱃동서들을 유혹하였다’고 썼다.

조기잡이가 서해안의 경기를 좌우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기는 시나브로 사라져갔다. 남획으로 인한 자원 고갈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참조기의 93.5%가 알을 낳지 못하고, 굴비로 엮을 수 없는 ‘미성숙어’(19㎝ 미만)라는 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최근 조사 결과다.

조기를 잡는 목포지역 유자망 배들은 한 달에 7회 정도 만선(滿船)을 하지만, 선주들은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이다. 어획량의 절반 이상이 1년생 미만의 ‘깡치’(15㎝ 미만)라 유류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때문이다. ‘풍요 속 빈곤’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